

# 구약논찬

제 17권 1호(통권 39집) 2011년 3월 31일

정 중호(계명대) '귀환 이주'가 구약에서 강조된 이유 ..... 134

이 논문은 '귀환 이주'가 구약의 핵심적인 주제임을 밝힌다. 저자는 그 이유를 이주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귀환 이주자들의 전승인 출애굽 전승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는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이주를 경험한 귀환 이주자들로 구성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사회통합을 이끌어내었음을 강조하며, 귀환 이주자들의 주장에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법례와 성전기구의 귀환 즉 하나님의 귀환임을 제시한다.

**Chong, Joong Ho** Causes of the Emphasis on 'Return Migration'  
in the Old Testament ..... 134

## ‘귀환 이주’가 구약에서 강조된 이유

정 중호 | 계명대

### 1. 머리말

최근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주자에 대한 관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주(migration)라는 이동에는 반드시 귀환 이주(return migration)라는 반대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sup>1)</sup>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도 귀환 이주 문제는 반드시 함께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세계적인 이주자의 숫자를 살펴보면 1960년에는 7,700만 정도였는데 1990년에는 1억 5,500만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2억1,400만 명이 이주대열에 동참하고 있다.<sup>2)</sup> ‘신유목민 시대라 할 정도로 세계는 열려있고 이동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1) 뉴스에는 ‘역이주자’ 혹은 ‘역이주’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나지만 학술 논문에서는 ‘귀환 이주자’(Return Migrant) 혹은 ‘귀환 이주’(Return Migration)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George Gmelch, “Retur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9 (1980) 135-159; W. Safran,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 (1991), 83-99쪽; 박 정석, “케랄라의 귀환이주자: 이주 과정과 소비 행위를 중심으로,” 『인도연구』 제12권 1호 (2007) 62-99쪽; 한 건수, “본국으로 귀환한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 가나와 나이지리아 노동자를 중심으로,” 『韓國아프리카學會地』 第27輯 (2008.6), 225-268쪽.

2)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의 보고서에 의한 수치인데 정확한 이주자의 수는 77,114,700명(1960

다. 그런데 이러한 이주자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귀환 이주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귀환 이주자가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주와 귀환 이주가 반복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주 기간이 짧아지고 이주와 귀환 이주가 반복되는 ‘순환 이주’(circular migration)라는 새로운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sup>3)</sup>

또한 외국인 120만 명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는 외국인들의 한국 이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환 이주라는 현상을 동시에 감안해서 살펴야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한국에 온 이주자 가운데는 귀환 이주를 목표로 하면서 이주생활을 하고 있는 숫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귀환할 때 금의환향할 수 있다는 희망은 이들의 이주생활을 지탱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역사를 살펴보면 이주와 더불어 귀환 이주가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고대 한국 역사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란을 겪은 한국 역사에 이주 혹은 포로와, 귀환 이주 혹은 귀환이라는 현상은 반복되는 사건들이었으며 현재에도 귀환 이주 문제는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1945년 해방 직후 해외로 이주한 한인의 숫자는 500만 명에 이르렀다. 대부분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중국으로 일본으로 이주한 숫자이지만 1860년대 이후 기아와 빈곤으로 인해 이주한 숫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방 후 3년 동안(1945-1948) 이들이 돌아 온 소위 귀환 이주자의 숫자는 남한의 경우만 250만 명에 달하였다.<sup>5)</sup>

그리고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인 재중동포의 귀환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2009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중동포의 숫자는 382,000명이었다.<sup>6)</sup> 또한 그 숫자가 2만 명 이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이 있다.<sup>7)</sup>

년), 155,518,065명(1990년), 213,943,812명(2010년) 등이다.

3) Vinay Gidwani and K. Sivaramakrishnan, "Circular Migration and Rural Cosmopolitanism in India,"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37 (2004), 339-367쪽.

4) 외교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5월 31일 현재 외국인 총 체류자 숫자는 1,187,377명이다.

5) 박 중기, "연구의 공백지대, 해외 한인의 귀환문제," 『역사와현실』 제51권 (2004. 3) 283~301쪽.

6) 외교통상부, "한국내 재중국 등록 현황," (2010. 6. 28 발표), 2쪽.

7) 통계청 발표 2009년 12월 북한이탈주민 총인원은 17,984명이며 2010년에는 2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참조: 김 화순, 유 길상,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미치는 남북인적자본의 영향 연구: A 북한이탈 주민 집단 370명이 진로추적 사례를 중심으로,"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또한 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숫자가 700만 명이며 이 가운데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오는 귀환 이주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sup>8)</sup> 또한 남북통일을 전망하면서 이 후에 발생할 대량 이주의 문제와 더불어 귀환 이주자의 소유권분쟁과 갈등을 예상해 볼 수도 있다.<sup>9)</sup>

이러한 한국의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구약에 나타난 귀환 이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구약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이주’가 주목을 받았을 뿐 ‘귀환 이주’를 주제로 채택하는 경우가 드물었다.<sup>10)</sup> 다만 구약에 나타난 귀환 이주 사건을 연구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 혹은 강제 이주 당했던 이주민들이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주전 538년부터 귀환한 사건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들면서 연구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주와 귀환 이주가 반복되어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구약에는 소위 ‘귀환 이주’라는 주제가 중요한 모티프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출애굽 사건을 귀환 이주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의 내용 전체를 귀환 이주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시내산 전승단락은 귀환 이주를 위해 준비하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으며, 신명기는 모세가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페르시아 시대 때 귀환 이주한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에스겔과 제2이사야(사 34-35장; 40-55장)는 귀환 이주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귀환 이주를 배경으로 기술된 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제3이사야(사 56-66장),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역대상, 역대하 등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면을 살펴보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방랑하는 아람

춘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97-129쪽.

8) 2010년 외교통상부의 외교 백서에 의하면 2009년의 경우 이주자는 1153명이고 귀환이주자는 4742명이다.

9) 예를 들면 독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통독 후 소유권 분쟁 때문에 5년간 400만건 소송사태를 경험하였고 20년간 약 120만 건의 토지소유권 반환절차를 완료했지만 그 갈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윤 철홍, ‘독일 통일 후 동독지역에서의 토지 소유권과 상속권 문제,’ 『북한법연구회 제137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2009. 1); “동독의 마지막 총리 로타르 드 메지에르와의 인터뷰,” 『연합뉴스』 (2009.10.25).

10) 강 성열,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62집 (2009년 4월), 5-33쪽; 이 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구약논단』 제27집 (2008), 70-88쪽; 정 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3권 1호(2004), 511-525쪽.

사람(신 26: 51)이라는 고백문을 들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주자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주자'의 경험은 이미 과거의 경험이었고, 고백을 하는 시점에는 이미 '귀환 이주자'로서 고백을 한 것이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귀환 이주자'에서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왜 구약은 '귀환 이주'를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다문화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귀환 이주' 문제를 주목하면서, 왜 '귀환 이주'가 구약에서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다.

## 2. 정체성 확립과 토지에 대한 권리 주장

귀환 이주자와 이주자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토지에 대한 권리다. 이주자는 처음부터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지만 귀환 이주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비록 귀환 했을 때 토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지만(창 12: 7) '이주자의 땅'이었다(창 17: 8).<sup>11)</sup> 그러나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에 이주했다가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귀환 이주자였다. 하지만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기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마므레(헤브론)의 막벨라 굴과 밭을 구입하여 사라의 묘지로 삼았다(창 23: 1-20). 이삭과 야곱 모두 귀환 이주자였지만 유목민으로 살아갔기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신다는 약속을 강조하였다(창 13: 15; 15: 7; 17: 8). 그리고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등의 족장들을 장사지냈다(창 49: 31). 다만 요셉은 세겔에 장사지냈다. 이 땅은 야곱이 세겔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에게 금 일백 개를 주고 구입한 땅이었다(수 24: 32).

11) 야곱도 이집트 왕 앞에서 자신의 평생 길이 험하였다고 이야기 할 때 자신의 평생 살아온 날들을 "나의 이주자의 세월"이라고 표현하였다(창 47:9).

귀환 이주자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의 경우이다. 출애굽전승은 이스라엘 건국에 바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전승이며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귀환 이주자의 전승이다.

고고학 자료를 검토해보면 출애굽한 집단이 그리 큰 집단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변동이 일어나고 이동성이 높아진 때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청동기 시대 때는 이 지역을 이집트가 통치하고 있었지만 주전 13세기 후반에 철기로 무장한 해양족속이 밀려오면서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있던 주민들이 내륙 산간지대로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sup>13)</sup> 아마도 단지파가 지중해 연안에서 갈릴리 이북으로 이동한 것이 이 시기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 형성된 것도 이러한 요인이 큰 요인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고학 조사를 통해 발견한 것은 이 산간지대에 주전 13세기에는 25개 정도의 부락을 확인할 수 있지만 주전 12세기에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300여개의 부락을 발견할 수 있었다.<sup>14)</sup> 주로 100-300명 규모의 부락이었으며 총 인구는 75,000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 규모였다. 이러한 규모는 주전 1207년경의 기록인 메르넵타 스텔라(Memepthah Stela)의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비문에 의하면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 팔레스타인 중앙 산간지대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황폐되었고, 그의 씨앗은 없어졌네!"<sup>15)</sup> 그리고 이러한 부락을 조사해 보면 이집트의 영향을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주전 13세기 이전부터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문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아 이스라엘이 출애굽 집단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이스라엘의 기원이 동서남북 여러 지역에서 들어 온 이주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구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17)</sup>

12) J. Weinstein, "Exodus and Archaeological Reality," Ernest S. Frerichs, Leonard H. Lesko, William G. Dever (eds.) *Exodus: The Egyptian Evidence*, (Eisenbrauns, 1997), 87-103쪽.

13) J. M. Miller/J. H.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77-79쪽.

14) William Dever, "이스라엘과 가나안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Hershel Shanks 등 편집,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 (강 승일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71-72쪽.

15) ANET, 378쪽. 메르넵타의 전쟁은 이 비문이 기록되기 5년 전인 주전 1212년에 일어났다. Hershel Shanks,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들," Hershel Shanks 등 편집,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 (강 승일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33쪽.

16) William Dever, 윗글, 85-87쪽.

이스라엘 사람 전체 가운데 이집트에서 귀환한 이주자가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틴 산간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전승을 자신들의 전승으로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즉 귀환 이주자로서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다. 가나안 땅은 야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준 땅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집트의 압제와 블레셋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자체적인 결속을 단단히 하였는데 그 핵심에는 야웨종교와 연결된 출애굽 전승이 자리잡고 있었다. 결국 귀환 이주자로서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된 것이다.

가나안 지역에 대한 이집트의 압제에 관한 기록은 이집트 왕 투트모세 3세(주전 1479-1425)부터 라암세스 3세(주전 1186-1154)와 라암세스 4세(주전 1154-1148)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라암세스 3세에 대한 기록을 보면 가나안 지역에서 잡아온 전쟁 포로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내 칼이 살려 둔 수많은 포로들, 그들의 손을 말에 묶어 끌어난 수만명의 포로들과 그들의 처자식들, 그리고 수십만의 가축들을 끌고 왔다.... 나의 이름으로 문신을 새겼다....<sup>18)</sup>

이 뿐 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 주민들을 이집트로 강제 이주 시킨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라암세스 2세 시대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사람들을 가나안 지역에 강제 이주 시킨 기록도 찾아 볼 수 있다.<sup>19)</sup>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갔고 빛을 갠지 못해 노예로 팔려간 기억을 중앙 산간지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압제받던 집단이 탈출하여 팔레스틴 땅으로 귀환 이주하였다는 출애굽 전승은 중앙 산간지대에서 이집트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17) 예루살렘의 경우 그 기원이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다음의 기록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주 야웨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근본과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겔 16:3).

18) *Harris Papyrus I*, “Slaves,” 204-205쪽.

19) Donald B. Redford, *Egypt, Canaan, and Israel in ancient tim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164, 207-209쪽 ; E. Bresciani, “Foreigners,” Sergio Donadoni (ed.), *The Egyptia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235쪽.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의 정체성 확립에 핵심적인 것이 되었다.<sup>20)</sup>

귀환 이주자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또 다른 사건은 페르시아 시대의 귀환사건이다. 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주전 597, 586) 바벨론으로 포로 혹은 강제 이주시킨 숫자는 약 4,600명이었다(렘 52: 28-30).<sup>21)</sup> 그런데 주전 538년부터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수는 약 5만 명(스 2: 64-67)으로 기록되어 있다. 과연 귀환한 이주자가 이렇게 많았을까? 불과 반세기 동안인데 인구가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을 발굴한 결과 페르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은 겨우 500명 정도 거주했을 공간밖에 없는 작은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22)</sup> 그리고 당시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집단이었다. 따라서 귀환 이주자의 숫자도 소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한꺼번에 돌아 온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다. 느헤미아가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개혁을 단행하였다.<sup>23)</sup> 유대인들이 귀환 이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이주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미 생활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을 버리고 귀환 이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둘째, 이미 이주 2-3세대가 되어 이주지의 문화에 적응하고 이주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귀환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귀환 이주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었던 아웨 종교에 투철한 사람들, 페르시아의 후원을 받아 보다 나은 장래가 보장된 사람들, 그리고 페르시아 원정군대에 참가하였다가 유대 땅에 정착한 사람들과 페르시아의 혼란으로 피난해야했던 사람들이 귀환 이주 대열에 동참하였다. 귀환의 계기가 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페르시아에서 파견되었을 때, 캄비세스의 이집트 원정 때(주전 525), 그리고 왕위 계승문제로 쿠데타와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귀환 이주를 하게 되었다.<sup>24)</sup>

20) Ronald Hendel, "The Exodus in Biblical Memory," *JBL* 120/4 (Winter, 2001), 608쪽.

21) 바벨론에 강제 이주당한 수가 열왕기하에도 나타나지만(왕하 24: 12-16),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숫자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렘 52: 28-30). 정 중호, 『이스라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55쪽.

22) Israel Finkelstein, "Archaeology and the list of returnees in the books of Ezra and Nehemiah," *PEQ* 140/1 (2008), 7쪽.

23)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 연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 경진,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유대역사 재구성: 기원전 458년에서 430년까지 - 에스라-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7집 (2008), 114-121쪽.

이처럼 귀환 이주자의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귀환 이주자가 공동체의 핵심이며 이들이 아웨종교를 숭배하는 핵심인 물이었다고 강조한다. 왜 이토록 귀환 이주자를 강조했을까? 왜 유다의 정체성의 핵심에 귀환 이주자를 위치시켰을까? 그것은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 유다지역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천명하기 위해서였다.

페르시아 시대 유다에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 혹은 강제 이주자로 바벨론으로 떠났을 때 남아있던 사람들 즉 “땅의 백성”(אֲדָמָה אֱמֹנִים 암-하이레츠) 혹은 “땅의 빈천한 사람”(אֲדָמָה נִלְוָה 미달라트 하이레츠)은 바벨론 왕이 자신들에게 땅을 배부해 주었다고 알고 있었다(왕하 25: 12 렘 52: 16 39: 10)<sup>25)</sup>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바벨론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고 있었지만 상당기간 토지를 점유하고 살아온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유다 멸망 이후에 혼합주의적 신앙이 있었지만 팔레스틴 지역에 아웨제의가 계속되었으며(렘 11: 15; 41: 5) 아웨 신앙자가 있었다(스 6: 15-22). 이 가운데는 팔레스틴에 이주한 이주민도 들어있었다. 페르시아 시대 때 귀환 이주자들을 대적한 소위 ‘베나민의 대적자’(스 4: 1-3)들도 예살허돈 왕의 이집트 원정 때(674 패전<sup>26)</sup>, 671 승전<sup>27)</sup>) 참여했던 외국인들이었으며 이들이 베나민 지역에 이주민으로 정착한 것이다.<sup>28)</sup> 이수르바니팔 왕의 이집트 침공(668 느고 1세를 왕으로 임명, 664) 때도 이러한 이주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sup>29)</sup> ‘베나민의 대적자’들은 자기들도 아웨를 섬기고 있으니 성전재건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스 4: 1-3). 이러한 행동은 자기들도 아웨의 땅에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귀환 이주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페르시아에서 돌아 온 귀환 이주자는 페르시아의 세력을 등에 업고 땅의

24) 정 중호, *윗글*(1994), 288쪽.

25) 애가에는 “우리 유업이 이방인(자림)에게, 우리 집들도 이방인들에게(네카림) 돌아갔다”(애 5: 2)는 구절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팔레스틴 공동체의 그릇된 이해를 논박하는 구절이라 볼 수 있다.

26) *ANET*, 302쪽. *ABC*, 84쪽.

27) *AENT*, 293쪽.

28) 김 지은, “유다와 베나민의 대적(스 4: 1)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10집 (2001), 92-97쪽.

29) *ANET*, 295쪽.

소유자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귀환 이주자에게 그 땅의 권한을 배분해 주셨다는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귀환 이주자들은 지파별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귀환해야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였다(스 2: 1 = 느 7: 6)<sup>30)</sup> 귀환의 희망을 강조한 예레미야에도 이러한 주장을 발견할 수 있으며(렘 3: 18; 12: 15; 16: 15; 42: 12), 귀환 이주를 준비하는 에스겔의 경우 더더욱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겔 11: 17; 34: 13).

결국 귀환 이주자들은 기존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을 추방시킬 수도 없었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귀환 이주자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페르시아 시대 유다 지역 공동체가 귀환 이주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은 페르시아 시대 유다 지역 주민들이 페르시아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귀환 이주자의 주장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점차 재확립하여 함께 토지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귀환 이주자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 확립과 사회 통합

왜 왕조 시조설화에 귀환 이주자가 태조왕이 되는 설화가 자리잡았을까? 다윗 왕조의 시조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 이주하였다가 귀환하여 후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망명 이주하였다가 귀환하여 후일 태조왕이 되었다. 또한 중요한 지도자도 귀환 이주자였다. 즉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미디안에 이주하였다가 귀환한 지도자였으며, 평생 귀환 이주자를 지도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귀환한 지도자였다.

다윗 왕조는 자신의 정체성을 족보상 귀환 이주자와 이주자에게서 찾는다. 룻기에는 다윗 왕조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은 귀환 이주자 나오미의 손자였고 이주자 모압 여인 룻의 아들이었다(룻 4: 13-17)<sup>31)</sup> 그런데 오벳이 태어날 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룻 4: 17)라는 이웃여인들의 탄성이 들려질 뿐 룻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귀환 이주자 나오미가 더욱 강조되며

30) 참조: 도시 목록(느 11: 25-36 = 수 15: 21-62) 레위성 목록(느 11: 20 = 대상 6장 = 수 21장).

31) 역대기에는 보아스-오벳-이새-다윗의 족보로 나타난다(대상 2: 12-15).

다윗의 혈통이 귀환 이주자임을 드러낸 것이다.

다윗은 상당 기간 블레셋에 머물러 이주자(용병으로서의 이주자)의 생활을 하였고 다시 귀환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유다 광야로 도피하다가 결국 블레셋으로 이주하여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의 휘하에 들어갔고 시글락의 성주로 있었다(삼상 27: 1-6). 다윗은 사울 왕이 죽기까지 블레셋에 있었는데 이 기간은 1년 4개월(삼상 27: 7)의 기간이었으며 그 후 다윗은 헤브론 성주로서 7년 반(삼하 5: 4-5; 왕상 2: 11)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헤브론 성주로 간 것은 블레셋의 장수로 간 것이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삼하 2: 4).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은 후 다윗은 베나민 땅 기브온을 침략하였고(삼하 2: 12) 사울 왕의 잔여세력과 장기간 전쟁을 하였다(삼하 3: 1). 이 때 다윗의 신분은 블레셋의 장수였으며 헤브론 성주였다. 다윗이 블레셋에 반기를 든 것은(삼하 5: 17-25) 사울의 잔여 세력이 평정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였다(삼하 5: 1-5)였다. 다윗의 가족들도 모압에 이주한 후 다시 귀환한 이주자였다(삼상 22: 3-4).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또한 귀환 이주자였다. 북왕국 시조 설화를 살펴보면 히브리어 성경(MT)과 70인역(LXX)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MT에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시삭 왕에게 피신했다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불러 세겜회의에 참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LXX의 왕상 12장 24절에는 긴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의 출신이 미천한 신분임을 밝혔는데 창녀 사리라의 아들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요셉 족속의 부역 감독관을 맡았는데 에브라임에 있는 사리라 성을 건축하였다. 여로보암은 300대의 전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 왕위를 노리다가 솔로몬에게 발각되어 이집트 시삭 왕에게 피신했다. 여로보암은 거기서 시삭 왕의 처형과 결혼하여 아비아를 낳고 솔로몬이 죽자 돌아와서 사리라에 요새를 건축하였다. 그 후 그는 세겜회의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sup>32)</sup>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이집트에서 도피하여 40년간 미디안에 살면서 결혼하고 자식도 얻었다. 미디안에서의 삶은 이주자의 삶이었고 그의 아들 이름도

32) MT와 LXX 공히 왕상 11: 26-40에 여로보암에 대한 소개가 있는 후 LXX만 왕상 12: 24에 여로보암에 관한 긴 이야기를 첨가하였다.

이주자의 삶을 반영하여 ‘게르숨’이라 지었다. 그 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귀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땅에서 탈출시킨 지도자가 되었다. 이집트로 귀환한 이주자, 즉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 온 자’가 지도자가 되어 귀환 이주자를 이끌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모세는 이주자를 노예의 땅에서 탈출시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던 ‘귀환 이주자의 길’을 인도한 지도자였다.

모세의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중재자(연결자)의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노예와 자유민 사이의 중재자, 이집트인과 미디안인 사이의 중재자,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이의 연결자, 아웨와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 등의 역할을 감당하였다.<sup>33)</sup> 모세처럼 이주와 귀환 이주의 경험이 있는 지도자는, 이러한 중재자와 연결자 역할을 감당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인물임을 보여 준 것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귀환 이주자였다.<sup>34)</sup>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측근으로 왕의 신임을 받은 고관이었다. 그는 왕의 특사로 예루살렘에 파견되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벽을 재건하였다. 이러한 성벽재건은 이집트를 막는 방어기지 건축의 성격이 있었기에 페르시아 왕이 적극 지원하였다.<sup>35)</sup> 또한 고리대금을 금지하였고(느 5: 1-13),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느 5: 14-18). 또한 레위인을 성전에 복귀시켰으며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게 하였다(느 13: 10-22).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서기관이며 제사장”(스 7: 12)으로 소개된 에스라도 귀환 이주자였는데 페르시아 왕의 특사였으며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 에스라는 유다 내부를 정비시켜 친 페르시아적 질서를 정착시키려는 페르시아 왕의 특명을 받고 파견된 관리였다.

귀환 이주자가 태조왕이 되는 시조설화는 왕조의 위상을 높여주며 통치자로서의 리더십 확립에 도움이 되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지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 나라들에 비해 약한 약소국가로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주자로 출발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는

33) Ronald Hendel, “The Exodus in Biblical Memory,” 615-620쪽.

34)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귀환 이주자인지 확실치 않다.

35) 정 중호, 율글(1994), 296쪽.

계속해서 이주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주자와의 연대와 통합은 통치자에게 있어서 언제나 현안 문제였다. 따라서 이주자로서의 경험을 한 후 귀환한 귀환 이주자가 지도자로서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귀환 이주자는 토지의 권리가 있는, 기득권이 있는, 세력이 있는 지도자 이면서 동시에 이주자로서의 고통과 슬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귀환 이주자의 경우에는, 이주의 삶 가운데 결혼을 통해서 또는 이주 생활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인해 가족 안에 이주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귀환 이주자가정의 특징은 이주자와의 복합체라는 것이다. 귀환할 경우 자녀들은 자동으로 이주자가 된다. 따라서 귀환 이주자는 이주자와의 연대와 협력에 누구보다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고 협력하는 방법을 터득한 경우가 많아 다문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자는 각양각색의 이주자들이 모여 있는 중앙 산간지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합시킬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모세처럼 이주자들이 노예로서 학대받는 상황에서 그들을 탈출시켜 귀환하였다는 이야기는 이집트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중앙산간지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감동적이며 힘을 북돋워주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다.

#### 4. 하나님의 귀환과 귀환 이주자

귀환 이주자가 구약에서 부각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귀환 이주자와 동행하여 함께 귀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귀환 이주자와 함께 귀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법궤의 귀환으로 그리고 성전기구의 귀환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집트를 탈출한 귀환 이주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려 할 때 법궤가 먼저 요단강에 도착하였고 이 때 요단강물은 멈추었다(수 3: 14 - 4: 18). 즉 하나님이 선두에서 귀환 이주자들을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또 한 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 ‘법궤설화’를 살펴보면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되돌아온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 블레셋으로부터 법궤와 더불어 귀환하신 하나님과 블레셋에서 돌아온 귀환 이주자와의 상관관계는 없을까? 그리고 성전의 기구가 귀환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성전 기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주자들과 함께 성전 기구가 귀환한 것이다. 이 때 바벨론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귀환 이주자들과 함께 귀환하셨다는 내용이 구약에는 강하게 강조되어 있다.

이집트를 탈출한 귀환 이주자들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동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것은 법궤였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발등상의 역할을 하였고(왕하 19: 15) 하나님은 법궤의 그룹 위에 좌정하셨다(출 25: 10-22; 레 37: 7-9; 민 7: 89; 왕상 6: 23-28; 8: 6-7)<sup>36</sup>). 법궤와 더불어, 즉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출애굽 귀환 이주자 집단은 하나님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법궤는 없었지만 많은 성전 기구들과 함께 귀환한 것을 볼 수 있다(스 1: 7-11; 6: 5)<sup>37</sup>. 성전 기구는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나타나시고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 이주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에스겔에서 찾아 볼 수 있다(겔 1: 1-28). 그리고 바벨론에 야훼 성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sup>38</sup> 바벨론에서 유다 이주자들과 함께 하셨던 야훼께서 이들이 귀환할 때 함께 동행하여 새로운 성전에 좌정하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에서 귀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대로를 여시고 귀환 이주자들을 선도하신다는 예언이다(사 40: 3-4). 비록 이들이 귀환했을 때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지만, 귀환 이주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귀환했다는 것을 들면서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36) M. Haran, *Temples and Temple Service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78), 251-254쪽.

37) '(성전) 기구'로 번역되는 **קְלַיִם**(켈리)는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성전과 관련되는 의미를 살펴보면, 등대를 포함한 성막의 기구를 가리키기도 하고(출 25: 9, 39), 솔로몬 성전의 기구들(왕상 7: 45-48), 야훼 집의 기구들(렘 27: 16-22; 28: 3, 6; 스 1: 7; 13: 9; 대하 28: 24; 36: 18), 야훼의 기구(사 52: 11) 등을 가리킨다.

38) 유대인이 거주하고 히브리어가 통용되는 이집트의 다섯 도시들이 야훼께 서약한 도시라고 했을 때 그 도시에 야훼 성전 혹은 야훼 제단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사 19: 19a, 20a). 또한 엘레판틴에 야훼 성전이 있었던 것을 보면 바벨론에도 야훼 성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성전을 건립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바람: L. E. Browne, "A Jewish Sanctuary in Babyonia," *JTS* 17 (1916), 400-401쪽; Joong Ho Chong, "Were There Yahwistic Sanctuaries in Babylon?," *Asia Journal of Theology* 10 (1996), 198-217쪽.

그러면 블레셋에서 귀환한 법궤는 귀환 이주자와 상관없이 우선 블레셋에서 이주하였거나 귀환 이주한 경우를 살펴보자.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이주하였다가 귀환하였다(창 21: 34).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 블레셋으로 이주한 이삭이 귀환하였고(창 26: 1-33), 기근으로 인해 블레셋으로 갔다가 7년 동안 머문 후 귀환 이주한 수넵여인의 이야기도 있다(왕하 8: 1-6). 또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을 때 다윗과 그의 휘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블레셋으로 갔으며 이것은 이주의 행렬이라 할 수 있다(삼상 27: 3). 그 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에서 1년 4개월(삼상 27: 7) 동안 거주한 후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장면은 귀환 이주의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인 가드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은 다윗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였다(삼하 15: 18-21).

구약에서 외적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919회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46%인 423회가 블레셋을 가리키고 있다.<sup>39)</sup>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이스라엘과 수많은 전투를 벌인 블레셋에는 당연히 수많은 이스라엘 포로들과 노예들이 있었을 것이다(삼상 4: 9). 특히 주전 11-10세기 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블레셋에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다.<sup>40)</sup> 이들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 귀환할 수도 있었으며 이러한 귀환 사건은 반복되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귀환한 이주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의 과정은 출애굽의 과정과 유사하다. 법궤를 빼앗아 억류한 블레셋의 도시들이 차례로 독종의 재앙을 만나고 그들의 신인 다곤 신상이 파괴되어 버렸다. 법궤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돌면서 독종으로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로 귀환하였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당한 이집트의 상황과 유사하다. 또한 법궤를 다시 돌리는 장면을 보면 출애굽의 상황을

39) Seymour Gitin은 구약에서 외적에 대한 언급을 조사하였는데, 총 919회 가운데 블레셋 423회(46%), 이집트 273회(30%), 요단동편 나라들과 아말렉 164회(18%), 두로와 시돈 59회(6%) 등으로 발표하였다. Seymour Gitin, "Philistine in Transition: The Tenth Century and Beyond," Seymour Gitin, Amihai Mazar/Ephraim Stern (eds) *Thirteenth to Early Tenth Centuries BCE: In Honor of Professor Trude Dothan*,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8), 163쪽 각주 4.

40) E. Bloch-Smith, "Israelite Ethnicity in Iron I: Archaeology Preserves What Is Remembered and What Is Forgotten in Israel's History," *JBL* 122/3 (Autumn, 2003), 415-417쪽.

이야기하면서 법궤를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타난다(삼상 6: 6). 그리고 이집트를 떠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은 패물들을 요구해서 가지고 나온 것같이 법궤는 금독종과 금귀를 제물로 받으면서 블레셋을 떠났다(삼상 6: 17-18).

법궤는 이스라엘 땅 벤세메스에 도착하였는데 벤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70인이 죽임을 당하였다(삼상 6: 17-19). 그 후 기랴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 엘리아살로 하여금 법궤를 지키게 하였는데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다(삼상 7: 1-2). 이 기간에는 사무엘과 사울 왕이 활동을 했는데 지파의 종교적 중심점인 법궤가 한적한 곳에 '보관'되지만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면이다. 아마도 또 다른 법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왕조를 일으킨 다윗 왕은 그동안 방치된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하였는데 옷사가 법궤를 붙들다가 죽임을 당하였다(삼하 6: 1-7). 이후 다윗은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블레셋에서 이주한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나중에 다윗 성으로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은 기쁨으로 뛰놀며 춤추었다(삼하 6: 16). 왕정 이전의 지파들의 종교적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점은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을 위해 기쁜 일이기도 하고, 수도로서의 예루살렘의 위상과 다윗왕조의 합법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귀환한 이주자로서 법궤가 블레셋에서 귀환했다는 사실이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주한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궤의 귀환 사건은 다윗과 더불어 블레셋에서 귀환한 많은 이주자들의 권환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투른(K. van der Toorn)과 하우트만(Cees Houtman)이 주장한 것인데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에봇'이 사실 '법궤'를 가리킨다는 주장이다(삼상 2: 28; 14: 3; 22: 18; 23: 6, 9; 30: 7).<sup>41)</sup> 즉 사무엘상에는 두 종류의 법궤가 있었고 그 중 하나의 법궤 전승은 '에봇'의 이름으로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울이 법궤를 소중하게 여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사울이 그 법궤를 소중하게 모셨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그 법궤는 기랴여아림에서 20년 동안 거의 주목을 받지

41) K. van der Toorn and Cees Houtman, "David and the Ark," *JBL* 113/2 (1994), 209-231쪽.

못한 채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울이 아히아에게 요청한 법궤는 또 다른 법궤로 보인다(삼상 14: 18).<sup>42)</sup> 투른과 하우트만의 주장에 따르면 다윗이 도피생활을 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서 법궤를 받았다는 것이다(삼상 23: 9).<sup>43)</sup> 이 법궤는 사울 왕국의 중심 성소인 놉에 있었던 것인데 사울이 놉 제사장을 학살할 때 도피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지고 갔던 것이다(삼상 23: 6). 만일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다윗이 아기스 휘하에서 시글락 성주로 있었을 때도 법궤를 가지고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삼상 30: 7).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당연히 법궤와 함께 귀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투른과 하우트만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윗이 하나님에게 물을 수 있는 성전 기구를 제사장에게서 받았고 그 거룩한 기구와 함께 블레셋에서 이동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물론 다윗이 헤브론에 귀환했을 때 그 성전 기구가 함께 귀환했을 것이다.

법궤가 블레셋에서 귀환하였고, 성전 기구(혹은 또 다른 법궤)가 다윗과 함께 귀환했다는 것은 블레셋에서 귀환한 이주자들의 합법성과 권리를 보장해 주는 중요한 것이다.

## 5. 결론

세계적으로 이주와 더불어 귀환 이주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다문화 사회 논의에 귀환 이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해방 후 250만명이 넘는 귀환 이주를 경험하였고, 현재는 재중동포의 귀환 이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통일문제도 역시 귀환 이주 문제임을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구약을 살펴볼 때 구약에는 귀환 이주의 주제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왜 구약에서 귀환 이주를 이처럼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42) 갑자기 사울이 법궤를 찾은 이 장면을 해석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3절에 나타나는 ‘에봇’으로 수정하여 번역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LXX<sup>26)</sup>에 ‘에봇’으로 수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려운 읽기를 택한다는 본문비평 원칙상(*lectio difficilior*) 이 구절은 ‘하나님의 궤’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43) K. van der Toorn and Cees Houtman, *윗글*, 227-228쪽.

팔레스틴 중앙 산지에 몰려온 이주자로 구성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돌아온 귀환 이주자들의 전승인 출애굽 전승을 자신들의 건국 설화로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또한 포로후기 유대 공동체도 페르시아에서 돌아 온 귀환 이주자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특이한 것은 왕조를 창건한 다윗과 여로보암이 귀환 이주자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웅인 모세도 귀환 이주자였다. 물론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귀환 이주자였다. 이처럼 지도자 역시 귀환 이주자로 구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주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귀환 이주자인 지도자들은 이주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회통합을 이루기에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귀환 이주자가 구약에서 부각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귀환 이주자와 동행하여 함께 귀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귀환할 때 법궤가 먼저 귀환하였고, 페르시아 시대에 귀환할 때도 성전 기구가 귀환하였다. 이처럼 법궤와 성전 기구가 귀환한 것은 하나님의 귀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부터 귀환한 법궤도 있었다.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블레셋에 포로로 간 이스라엘 사람도 많았고, 기근으로 인해 블레셋에 피난 간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귀환 이주자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블레셋 귀환 이주자인 다윗이 블레셋에서 귀환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자신의 정통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을 보면서 블레셋에서 귀환한 법궤도 귀환 이주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환으로 인정할 수 있다.

## 6. 참고문헌

- 강 성열,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62집 (2009년 4월), 5-33쪽.
- 김 지은, “유대와 베냐민의 대적(스 41)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10집 (2001), 85-101쪽.
- 김 화순/유 길상,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미치는 남북인적자본의 영향 연구: A 북한이탈주민 집단 370명이 진로추적 사례를 중심으로,”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97-129쪽.
- 민 경진,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유대역사 재구성 : 기원전 458년에서 430년까지 - 에스라-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27집 (2008), 114-121쪽.

- 박 정석, “케달라의 귀환이주자: 이주 과정과 소비 행위를 중심으로” 『인도연구』 제12권 1호 (2007) 62-99쪽.
- 박 중기, “연구의 공백시대, 해외 한인의 귀환문제,” 『역사와현실』 제51권 (2004. 3월) 283~301쪽.
- 윤 철홍, “독일 통일후 동독지역에서의 토지 소유권과 상속권 문제,” 『북한법연구회 제137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2009년 1월).
- 이 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구약논단』 27집 (2008), 70-88쪽.
- 정 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3권 1호(2004), 511-525쪽.
- \_\_\_\_\_, 『이스라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한 건수, “본국으로 귀환한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 가나와 나이지리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글어프리카학회지』 第27輯 (2008년 6월), 225-268쪽.
- Bloch-Smith, E., “Israelite Ethnicity in Iron I: Archaeology Preserves What Is Remembered and What Is Forgotten in Israel's History,” *JBL* 122/3 (Autumn, 2003), 401-425쪽.
- Bresciani, E., “Foreigners,” Sergio Donadoni (ed.), *The Egyptia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 Browne, L. E., “A Jewish Sanctuary in Babyonia,” *JTS* 17 (1916), 400-401쪽
- Chong, Joong Ho, “Were There Yahwistic Sanctuaries in Babylon?,” *Asia Journal of Theology* 10 (1996), 198-217쪽.
- Dever, William, “이스라엘과 가나안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Hershel Shanks 등 편집,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 (강 승일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49-121쪽.
- Finkelstein, Israel, “Archaeology and the list of returnees in the books of Ezra and Nehemiah,” *PEQ* 140/1 (2008), 7-16쪽.
- Gidwani, Vinay and Sivaramakrishnan, K., “Circular Migration and Rural Cosmopolitanism in India,” *Contributions to Indian Sociology* 37 (2004), 339-367쪽.
- Gitin, Seymour, “Philistine in Transition: The Tenth Century and Beyond,” Seymour Gitin, Amihai Mazar/Ephraim Stern (eds), *Mediterranean Peoples in Transition*,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8), 162-183쪽
- Gmelch, George, “Retur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9 (1980) 135-159쪽.
- Haran, M., *Temples and Temple Service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78).
- Hendel, Ronald, “The Exodus in Biblical Memory,” *JBL* 120/4 (Winter, 2001), 601-622쪽.
- Miller, J. M./Hayes, J. H.,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Redford, Donald B., *Egypt, Canaan, and Israel in ancient times*, (Princeton: Princeton

- University Press, 1993).
- Safran, W.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s* 1 (1991), 83-99쪽
- Shanks, Hershel,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들," Hershel Shanks 등 편집,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 (강 승일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11-46쪽.
- van der Toorn, K./Houtman, Cees, "David and the Ark," *JBL* 113/2 (1994), 209-231쪽.
- Weinstein, J., "Exodus and Archaeological Reality," Ernest S. Frerichs, Leonard H. Lesko, William G. Dever (eds.) *Exodus: The Egyptian Evidence*, (Eisenbrauns, 1997) 87-103쪽.

## 검색어

귀환 이주  
하나님의 귀환  
리더십  
법궤  
정체성

# Causes of the Emphasis on 'Return Migration' in the Old Testament

**Joong Ho Cho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The phenomenon of increasing 'return migrants' worldwide points to the need to give attention to the issue of 'return migration' in discussions regarding the emergence of a multi-cultural society. Korean society has seen a total of 2.5million 'return migrants' after World War II, and today we experience not only the return of Korea minorities living in China, but also expect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ignite further waves of return migration.

We find that the issue of return migration is the essential theme of the Old Testa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reasons for the strong emphasis on 'Return Migration' in the Old Testament.

The people of Israel in the central mountains who were migrants accepted the Exodus tradition as their story and established their identity by claiming the land as their property. The post-exile community also established their identity as returnees and claimed the land as their property.

David and Jeroboam, who established kingdoms, and Moses, who was hero of Israel, were also return migrants. We also know Ezra and Nehemiah were return migrants. Returnee leaders were welcomed for their experience with migration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situations faced by migrants. Therefore, return migrant leaders were able to unify their society into one community.

Return migrants also returned with symbols of God, specifically the Ark

or temple vessels. The Ark entered the Jordan River in hand with the Exodus returnees, and the post exile returnees also returned with temple vessels. Another Ark also returned from Philistine. We know that many Israel captives were taken to Philistine following numerous battles. Moreover, famine forced Israelites to leave their home land and go down to Philistine. Thus, it is likely many return migrants from Philistine existed in Israel, among them King David. David, as a return migrant, carried the Ark which returned from Philistine to Jerusalem. Through this process God returned from Philistine and formed the basis of authority and security for a Davidic kingship.

### **Key Words**

return migration

God's return

leadership

Ark

identity

■투고일: 2010년 12월 24일

■심사일: 2011년 1월 30일

■게재확정일: 2011년 2월 21일